

기후변화협약 총회 유치하자 여주시 참관단 파견 홍보 총력

아제르바이잔 총회 부시장 등 참가 각국 대표단에 의지·당위성 설파

여주시가 지구촌의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으로 나서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주시에 따르면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리는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 참관단을 파견해 2028년 개최 예정인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에 대한 여수 및 남해안 남중권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기후 관련 최대 규모의 국제 환경회의이며, 국제기구·기후변화 전문가 등이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최정기 부시장을 비롯한 통역 등 6명으로 구성된 참관단을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아제르바이잔에 파견했다. 파견단은 총회에 참석해 COP33 유치 의지 및 개최 당위성 등을 적극적으로

으로 설명했다.

참관단은 11일 개막식에 참여해 이틀레이 세계 지방정부협의회 유누스 아리칸 글로벌 정책 총괄 국장을 면담하고, 이어 기후변화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과 여주시 탄소중립 정책 등을 소개했다.

참관단은 또한 아제르바이잔 방문에 앞서 지난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2020년 세계박람회(Expo 2020)가 열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방문해 2026여수세계박람회 콘텐츠 구성 및 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안 등을 위한 선진지 시찰에도 나섰다.

최정기 여주시 부시장은 "기후 위기가 생태계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분야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동안 여주시가 추진해 온 탄소중립 정책을 세계에 알리고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로서 여수의 위상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는 198개 당사국 정부대표단과 기후변화 전문가 등 5만여 명이 참석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가을 절정...파란 하늘 아래 활짝 핀 코스모스

여수 화장동 선사유적공원 내 만개한 코스모스 꽃밭이 파란 하늘과 조화를 이루며 가을의 정취를 물씬 풍기고 있다. 가을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약 5,000㎡의 꽃밭은 도시농업연구 화농업인학습단체 등 시민단체가 직접 조성한 곳이다. <여주시 제공>

구례군 여순사건 전문가 17명 탄생...연구회 역사학당 수료

리마인드·다크투어 등 해설사 활동

구례군이 군 최초로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전문가 17명을 배출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여순사건' 시행 이후 여순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사업으로 운영한 '구례 10·19연구회'의 여순사건 역사학당을 통해 총 17명의 전문가를 양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일 역사학당을 수료한 이들은 앞으로 여순사건을 소재로 한 군의 여행 프로그램인 '리마인드 투어'·'다크투어' 등에서 해설사로 활동하게 된다. 또 군에서 개최하는 여순사건 관련 공연 또는 전시회 등 각종 행사에서 여순사건의 자세한 사

황을 설명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수료자들은 군에서는 처음으로 양성된 여순사건의 전문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구례 10·19연구회가 지난 4월부터 운영한 역사학당의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에는 당초 40여명이 지원했다. 연구회는 6월까지 3개월간의 기본과정을 통해 23명의 1차 수료자를 선발했으며, 8월부터 11월까지 심화과정을 통해 최종 17명을 배출하게 됐다. 심화과정에서는 여순사건의 전개 과정과 구례군의 피해사례 등 보다 깊이 있는 교육과정을 거쳤다.

구례군은 여순사건법 시행 이후 '여순사건 희생

자 유족 피해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희생자 명예 회복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여순사건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역사학당을 연구회 주관으로 운영하게 됐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군은 3,000명 이상의 여순사건의 희생자가 발생하였으나, 희생자의 유족들은 그날의 아픔을 가슴 속으로 삭이며 살아왔다"면서 "올해 운영된 역사학당을 수료한 전문가들을 통해 군민을 비롯한 군 방문객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적 아픔에 대하여 좀 더 공감하고, 배움으로써 사건을 이해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을 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고흥군의회 해창만 간척지 농민단체 간담회

임대농지 매각·소유권 이전 등 논의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는 지난 7일 포두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고건 위원장(고흥군의회 해창만 간척지 조사 특별위원회) 주재로 '해창만 간척지 농민단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특별위원회 출범 이후 그동안 진행한 상황을 농민단체 대표 등과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포두면 농업경영인회 류태근 회장을 비롯해 20여명의 농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위원회 출범 취지 및 경과 안내 ▲해창만 간척지 현황 설명 ▲해창만 간척지 현실에 따른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응답 및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박경석 부위원장은 몇 년 전 보상토지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직접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험을 농민단체 대표 등과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농민단체 대표 등은 처음으로 해창만 간척지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준 특별위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세 가지 숙원과제인 임대농지 매각, 보상토지 소유권 이전, 보상토지 직불금 미지급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논의된 내용은 ▲임대농지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 여부 ▲보상토지에서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 ▲등기상 보상토지 소유권이 고흥군으로 되어 있으니, 단년으로 임대차 계약이 가능

한지 등 이었다. 해창만 침수대책위원회 정중배 위원장은 "1960년대 간척사업 당시 고흥군의 필요 사업이 진행됐고, 공사가 장기간 지속하면서 소유권 이전이 쉽게 진행되지 못했다"며 "고흥군이 책임감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고건 위원장은 "지난 9월 집행부 보고회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경직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창만 간척지의 오랜 숙원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 함께 뜻을 모아 협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해창만 간척지 경직민들의 숙원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장에 고건 의원, 부위원장에 박경석 의원, 김미경·한승욱·박규대·전명숙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오는 12월 개 해창만 간척지 전체 경직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추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광양시 '마음보듬 상담소' 수강생 20명 모집

19일까지...18~45세 광양시민 대상

광양시의 청년 심리상담 프로그램 '마음보듬 상담소'의 올 하반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마음보듬 상담소'는 청년들의 기질 파악과 심리치료를 도움으로써 청년들의 심리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상담 전 CI 검사와 HTP 검사를 시행한다. CI는 선전적 기질과 후천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검사이며, HTP는 인격의 양상을 측정하기 위해 설계된 투영 검사이다.

이번 프로그램의 모집 기간은 11일부터 19일까지이며, TCI·HTP 검사 각각 10명씩 총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광양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광양청년꿈터' 누리집에 접속해 수강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공고) 또는 광양청년꿈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광양청년꿈터는 청년들에게 스테디·회의를 위한 창의실 무료 대관과 청년 정장 무료 대여 사업('청년 감동 날개') 등을 운영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